

역사적 사건·기술 환경... 아시아 미술 지형 변화 제시



강수지·이하영 작 '민주주의 덕질하기'

동시대 아시아 미술의 지형과 변화를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새로운 브랜드 전시가 벌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숙)은 아시아 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들을 조명하는 전시 'ACC NEXT 아시아 신진 작가전'을 오는 3월 29일까지 복합전시5관에서 선보인다.

'ACC NEXT'는 ACC가 역량 있는 아시아 신진 작가를 발굴해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ACC

'ACC NEXT' 내달 29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5관 신진작가 5개 팀 '민주주의 덕질하기' 등 총 16점 선봬

여주는 전시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 강수지·이하영, 아주연·이시마와 해외 작가 유안왕(중국), 치우즈 엔(대만) 등 총 5개 팀(6인)의 작가가 참여해 총 1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장르와 매체의 구분 없이 아시아 시각 문화를 중심으로 실험적 태도와 뚜렷한 작업 비전을 지닌 신진 작가들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삶과 주변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영상·설치·시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개인의 기억, 사회적 불안, 역사적 사건, 이미지와 기술

환경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오늘날 아시아 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현실과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강수지·이하영 작가는 가상의 아이돌 '키세스'의 멤버 민주와 주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생일카페'를 구성, 12·3

비상계엄 시위 현장에서 보격한 팬덤 문화를 민주주의를 향한 새로운 연대의 동력으로 상상하고 제시한다. 아주연 작가는

서울 마포 소재 당인리 밭전소 인근 생산공장에 대한 소문과 시라진 여성 노동자 및 침목을 다루는 영상 설치 작품을 선보여 집단 기억이 오류를 일으키는 만델라 효과에서 착안, 개인의 회상과 역사적 이미지를 교차한 허구적 서사를 통해 대만의 근현대사를 다시 바라보게끔 한다.

전시는 참여 작가들의 문제의식과 표현 방식을 한 공간에서 함께 소개하며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되기 어려운 아시아의 현재를 다채로운 시선으로 보여준다. 관람객은 작품을 따라 이동하며 서로 교차하는 시선과 감각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ACCNEXT'

는 단발성 전시에 그치지 않고

여는 전시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 강수지·이하영, 아주연·이시마와 해외 작가 유안왕(중국), 치우즈 엔(대만) 등 총 5개 팀(6인)의 작가가 참여해 총 1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장르와 매체의 구분 없

이 아시아 시각 문화를 중심으로 실험적

태도와 뚜렷한 작업 비전을 지닌 신진

작가들로 선정됐다.

이들은 각자의 삶과 주변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영상·설치·시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개인의 기억, 사

회적 불안, 역사적 사건, 이미지와 기술

동자의 흔적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록되지 않는 노동과 삶을 감각적인 시운드와 이미지로 연결한다.

이시마 작가는 영혼결혼식을 모티프로 정상이라는 기준을 규정하고 유지하려는 사회적 관성이 소수자 개인에게는 폭력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유안왕 작가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수집한 영상을 재활용해 새로운 풍경을 형성. 예술 가능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날씨처럼 작동하는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을 상상하고 데이터가 개인의 감정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화한다. 치우즈 엔 작가는 비상계엄과 2·28 사건 등 대만의 역사적 공백기를 둘러싼 기억의

아시아 신진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동시

대 예술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국내 신진

작가들이 국제 규모의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과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숙 전당장은 "ACC NEXT"는 새

로운 세대의 미학적 실천이 앞으로 아시

아를 넘어 어떤 궤적을 그려 나갈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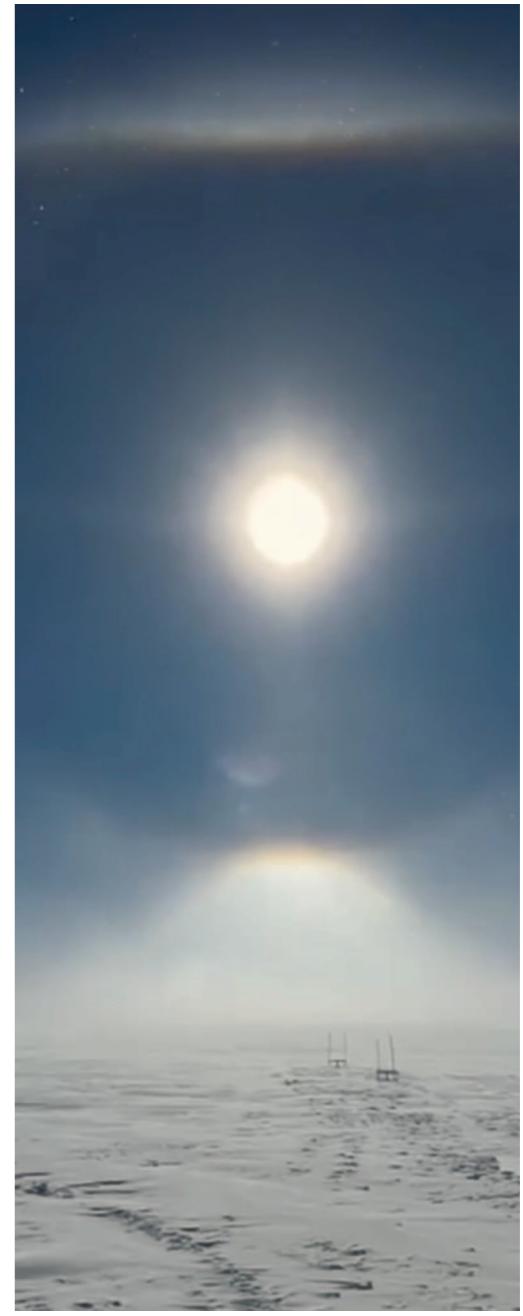
을지를 기능하는 출발점"이라며 "아시

아 신진 작가들의 실험과 교류를 통해

아시아 예술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자

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유안왕 '웨더' 스틸컷

깊고 따뜻한 바순 음색으로 채우는 오토움 첫 무대



13일 오전 11시·오후 7시30분 광주예당 소극장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 바수니스트 유성권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병욱)은 2026년 오토움 콘서트의 첫 무대로 'Bassoon'을 선보인다.

오토움 콘서트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음악에 머무르며 사유하는 '의미 있는 여가(Otium)'의 시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시향의 기획 공연 시리즈다.

2026년 오토움 콘서트는 지난해에 이어 '악기'를 주제로 오페스트리를 이루는 각 악기의 역할과 음색, 음악적 매력을 집중 조명한다. 첫 무대에서는 목 관악기 가운데 가장 낮은 음역을 담당하는 바순(Bassoon)을 중심으로 악기 고유의 음색과 오페스트리 내에서의 기능, 그리고 다채로운 표현력을 깊이 있게 소개한다.

이번 공연은 김영언 부지휘자의 지휘

와 해설, 그리고 바수니스트 유성권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해설은 곁들인 구성은 관객이 바순이라는 악기를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음악적 구조와 표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돋는다.

첫 번째 곡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Op.12'로 따뜻하게 문을 연다. 이 작품은 엘가가 악주자에게 헌정한 곡으로 사랑의 감정과 품격 있게 담아낸 작품이다. 이어지는 베버의 '바순 협주곡 F장조 Op.75, J.127'는 바순을 독주 악기로 전면에 내세운 대표적인 협주곡으로 넓은 음역과 유연한 기교, 오페스트리와의 생동감 있는 대화를 통해 악기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마지막으로 연주되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4번 B♭장조 Op.60'은 밝고 경쾌한 성격의 작품으로 고전주의적 형식미와 역동적인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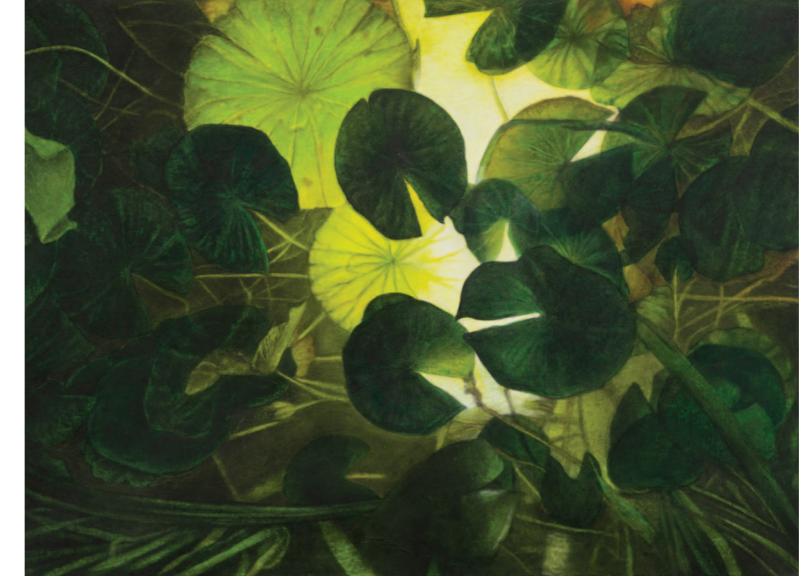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바순 협연자로 나서는 유성권은 16세에 베를린 국립음악대학에 최연소 입학·졸업하고, 21세에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수석 바수니스트로 임명된 세계적인 연주자다. 입단 반년 만에 중신 단원으로 선발되며 국제 관악계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솔리스트와 양상을 연주를 병행하는 한편 베를린 국립 예술대학에 출강하며 차세대 연주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오토움 콘서트는 2월,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바순의 따뜻한 음색으로 사랑의 감정을 전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향은 이번 무대를 통해 음악 속에서 잠시 머무르며 사랑하는 오토움의 가치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토움 콘서트 I 'Bassoon'은 오는 13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초등학생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과 Yes 24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이성경 작 '땅의 꽃 23-7'

동시대 감각과 문제의식 작업에 투영

함평군립미술관 기획전 '확장의 순간' 4월 5일까지

참여작가 설박·이성경 변화 모색과 현재 기록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하며 작업의 영역을 넓혀 왔다. 특히 최근 작업에서는 자연을 외부의 대상이 아닌, 자신이 속한 조건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성경 작가는 반복적이고 짐작한 제작 과정을 통해 시간과 기억을 회면에 축적해 온 작가다. 세 겹으로 배치한 장지 위에 목판과 물감, 아교 고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그의 작업은 '그림자'와 '경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상태를 섬세하게 포착한다.

이번 전시는 이미 축적된 성과 위에서 새로운 질문과 변화를 모색하는 작가들의 현재를 기록하는 전시로 이해하면 된다.

단순한 신진 작가 소개를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작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작가들의 '현재'에 주목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시대의 감각과 문제의식을 작업에 담아내며, 꾸준한 실천을 통해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확장해온 두 작가의 시대에 대한 해석을 읽을 수 있다.

함평군립미술관은 '확장의 순간'이라는 타이틀로 한 기획전을 지난 3월 개막, 오는 4월 5일까지 갖는다. 전시 참여작가로는 설박·이성경이다.

단순한 신진 작가 소개를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작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작가들의 '현재'에 주목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동시대의 감각과 문제의식을 작업에 담아내며, 꾸준한 실천을 통해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확장해온 두 작가의 시대에 대한 해석을 읽을 수 있다.

먼저 설박 작가는 한국 전통 수묵산수의 재료와 공간 개념을 출발점으로 이를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해 왔다. 며의 물성과 우연성을 활용한 수묵산수에서 출발해

설치 및 주상 작업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광주시립극단 상반기 공연 참여배우 오디션

'소녀들' 15명·'금쪽이 김덕령' 6명 19일까지 모집

광주시립극단은 올해 상반기 광주시립극단 공연에 참여할 연극배우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공연은 광주시립극단 제26회 정기공연 '소녀들'과 찾아가는 예술단 사업으로 선보일 '금쪽이 김덕령' 등 상반기 제작 공연 2편이다. '소녀들'과 '금쪽이 김덕령'에 각각 15명, 6명을 선별할 계획이며, 지원자는 두 공연에 각각 혹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연극 무대에 정식으로 데뷔한 경력이 있는 배우로 2007년 2월 28

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광주시립극단은 1차 서류심사, 2차 실연심사를 통해 오는 27일 최종 합격자를 광주시립극단 누리집에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립극단은 올해 상반기 광주시립극단 공연에 참여할 연극배우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시작은 시립극단 제26회 정기공연 '보이체크' 모습.

//gjart.gwangju.go.kr

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gjart@gwangju.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은 "시립극단의 무대를 함께 만들어갈 역량있는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